

지역 소식 통

정읍시, 경로당 384곳

개보수 · 기능보강 추진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강화를 위해 경로당 384개소에 대한 개보수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추경을 통해 4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총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기능보강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하고 여름철 폭염 등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개선 대상은 경로당이 없는 마을 2곳에 새로 신축하는 사례를 포함해 총 384개소다. 시는 경로당의 규모, 이용 인원, 건축 연도, 노후화 정도 등을 면밀히 확인한 뒤 개보수가 시급한 203개소를 선정했다. 또한 에어컨, TV, 냉장고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179개소에는 기능보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민장학재단, 우수

인재장학금 190명 선발

정읍시민장학재단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우수 대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의 자녀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학기별 9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백분율로 환산한 평균 성적이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민선 8기 이학수 시장의 공약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장학 인원 확대 계획은 2026년까지 총 200명 선발을 목표로 하며, 올해는 전년보다 20명을 더 늘려 19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4년제 대학생 156명, 전문대생 34명이다.

장학생에게는 4년제 대학생 220만원, 전문대학생 18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총 지원 금액은 4억 4040만원 규모로, 재단은 성적과 생활 형편 등을 종합 평가해 선발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선공약 실행 · 국가예산 확보 총력

심덕섭 고창군수, 기재부 방문... 서해안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현안건의

심덕섭 고창군수가 14일 오후 기재부장을 방문해 대선공약 실행과 2026년 국가예산 반영을 위한 전방위 행보에 나섰다.

이날 심 군수는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을 만나 대선공약으로 반영된 서해안(새만금-목포) 철도 건설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인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간 도로망에 집중되었던 서해안 남북축 연결기능의 철도 분산화, 교통 접근성 제고, 물류비용 절감 효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며, 현 정부의 5국 3북(5국-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북-제주, 강원, 전북) 기반의 국가균형발전 실현과도 큰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다.

고창군은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해 11월 군산 부안 등 5



개 시·군과 힘을 모아 국가철도망 노선 반영 결의문을 채택하고, 3월에는 국회 정책 포럼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 U자형 철도망의 마지막 단절구간 연결을 위한 전방위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심 군수는 또 하나의 대선공약인 국제 카누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197억원)을 건의했다. 고창군 심원면 염전부지에 국내 최초 카누 전용 경기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창군은 이미 4만2000평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경기장 조성을 위한 각종 사전절차를 신속히 이행 중이다. 선수단 수용이 가능한 471실 규모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역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심 군수는 '카누 슬라럼은 올

림픽 정식종목으로, 2036년 전북 하계 올림픽 유치에 필수 기반시설이며, 고창군만큼 선제적으로 준비를 마친 지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군수는 유병서 예산실장을 만나 서해안 섀넌드라이브 조성사업(구시포)(100억원)을 설명했다. 이 사업은 서해안의 대표 노을 명소인 구시포항 일원에 아라리오미술관, 전망타워 등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노을대교 건설 명사십리 해양관광지 개발과 연계해 서해안 대표 명품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조용범 예산총괄심의관을 만나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196억원),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320억원) 등 계속사업 4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실무 책임자인 강운진 경제예산심의관,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 임대환 안전예산과장, 김혜영 지역예산과장을 만나 고창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310억원), 대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30억원) 등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축산농가 종합대책 가동

고창군, 여름철 폭염 등 대비 현장점검반 운영

고창군은 여름철 폭염 등 기상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축산분야 폭염여파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축산재해 종합대책 상황반'을 운영한다.

축산과 직원 10명을 총동원하여 주 3회 폭염에 취약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여름철 가축 사육관리 요령을 지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창군은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총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스프링클러, 환풍기, 콜리패드 등 냉방·환기 장비 및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



지 사업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고창군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축산 관련 단체와 협력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손실 보전이 가능하며, 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경영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폭염 대책... 현장서 시민 체감도 'UP'

'얼음생수', '스마트 그늘막', '무더위 쉼터'...정읍시가 마련한 폭염 대책이 시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실효를 거두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 시민들은 "작지만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정읍시의 세심한 행정에 감사함을 전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여름 74일간 이어진 폭염 특보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2025년 폭염 종합대책'을 가동 중이다.

올해는 시 전역 9곳에 얼음생수 3만 병을 비치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조치는 현장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시민들은 "무더위에 지칠 때 길가에 비치된 생수 하나가 큰 위로가 된다"

다", "세심한 배려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내에는 스마트 그늘막 10개소를 설치해 폭염 속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특히 정류장, 공원, 교통섬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강화했다. 정읍시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운영질환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4000여명의 재난도우미를 통해 인부 확인과 현장 대응을 실시, 총 410곳의 무더위쉼터 운영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쉼터마다 생수, 수박, 아이스크림 등을 비치해 무더위 속 휴식의 질을 높이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보건소, 폭염 취약계층 건강 돌봄 '강화'

정읍시 보건소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을 집중 보호하기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안부확인에 나섰다.

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독거노인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들이 운영질환으로 위급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활용해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인력은 건강상태 점검은 물론,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 심리적 안정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더불어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질병 악화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있다.

특히 AI-16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



업을 통해 혈압과 심박수를 원격으로 확인, 스마트폰 앱 '오늘건강'을 통해 기온 변화에 따른 맞춤형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비대면 시스템은 무더위 속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 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최선

전담콜센터 운영 등 전력

부안군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급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전담콜센터 운영, 홍보, 이의신청 처리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1인당 일반국민 20만원, 차상

위·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수급자 45만원을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 1차 신청접수 및 지급하고 오는 9월 중 2차는 상위 10%를 제외한 신청접수 및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부안사랑상품권(카드형)·선불카드(무기명)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성인 개인별 신청 원칙으로(신청자 본인명의 카드만)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경제 지원책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청호수마을, 농촌발전유공 농식품부 장관 표창 수상

부안군 하서면 청호수마을(하서면 영성로 258-14)이 2025년 농촌발전유공(도농교류활성화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이 주도해 도농 간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이어온 성과로 공동체 중심의 체험관광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확산시킨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

청호수마을은 2018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연간 2만여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최근 3년간 연평균 1억



8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하는 등 자립형 농촌관광 거점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파파티

와 꽃무릇 축제, 외국인 스카우트 체험 유치 등 도농 간 정기적 교류와 지역 농산물의 홍보·판매는 물론 농촌 생활의 가치 확산에 기여해왔다.

또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교육·복지 연계 활동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청호수마을은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관광 등급결정 평가에서 체험·숙박·음식 전 부문 최고등급을 받아 ' 으뜸촌'으로 선정된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